

신실한 제자가 세상의 존중을 받는다



‘성북구 종암동’이 주는 의미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성북중앙교회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 지역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전통 시장이 많다는 것이다. 유명 대형 마트로 가득 차 있는 서울 한복판에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청량리종합시장’과 같은 전통 시장들이 군집해 있다. 이는 서울 시내에 한국의 전통적 정을 느낄 수 있는 동네가 있다는 것과,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싶다.

이 지역의 또다른 특징은 대학이 많다는 것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성신여대’ 등 열정과 패기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20~30대들이 군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북구 종암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이 지역의 세대 간 차이가 서울 그 어떤 지역보다도 크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다. ‘한얼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 ‘충신대·칼빈대 총장 김의환 목사’ 등 이름만 대도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담임목회를 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북중앙교회’다.

그곳에서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 목회로 세대 간 연합과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길성운 목사를 만났다. 그는 이런 지역적 특성과 전통 교회라는 뿌리 위에 제자훈련 사역을 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며 기쁨을 느끼는 목회자였다.

상아탑에서 시작된 믿음의 삶

길 목사는 충남 청양군 칠갑산 기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집에서 태어난 목회자들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중3이 돼서야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바로 문화촌 영광교회였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찾아간 교회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하 40평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길 목사는 대학, 신대원, 목사 안수 후 2년 동안, 약 17년을 섬긴다.

그는 대학시절 기독교학생회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대학교 3학년 때, 기독교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인생 전부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겠다며 헌신을 결심한다.

사실 이 같은 결심이 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가슴 한편에 있었다. 그런 그가 헌신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과 당시에 접한 책 한 권 때문이었다.

어느 가을, 그는 이문열의 『시인』이라는 책을 만난다. 이 책은 김 샷갓이 방랑 시인으로서의 삶과 부자로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갈등이 주를 이룬다. 김 샷갓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시인의 삶을 택한다. 책을 읽은 길 목사는 '성경 말씀을 전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 이상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다. 결국 길 목사는 고민 끝에 총신대 신대원으로 진로를 결정한다.

그는 신대원 시절 신학 공부를 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당시 룸메이트가 현재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가, 친구들의 학구적인 열정이 자신에게 많은 도전이 됐다고 고백했다. 또한 길 목사는 신학 공부도 중요했지만, 당시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도 무척 중요했다고 말한다.

그는 화요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며, 예배를 인도했다. 금요일에는 성균관대에서 뱀엘 성경공부를 가르쳤고, 밤에는 교회에 가서 찬양인도를 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제자훈련을 접하게 된다.

길 목사는 제자훈련 사역을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경험한다. 당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는 제자훈련이 활발했는데, 기독교학생회를 통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된 그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그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운명적인 책 한 권을 접한다. 바로 『평신도를 깨운다』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목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문화촌 영광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 혼자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라 『평신도를 깨운다』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 결국 이 책과의 만남은 목회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더욱 더 제자훈련 사역에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길 목사는 17년간 평신도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문화촌 영광교회를 사임하고, 1999년 신림동 동산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다.



길성운 목사는 성균관대 영문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했다. 성대기독교학생회 간사 및 지도교역자, 문화촌영광교회 및 신림동 동산교회에서 10년 이상 청년 사역을 했다. 이후 사랑의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며 제자훈련, 영성사역, 목양사역을 경험했고, 2009년말 성북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길 목사에게 있어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현장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였으며,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 준 곳이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여러 청년들이 선교사와 신학생으로 헌신했고, 이 시절 동산교회 청년부는 제자훈련 사역으로 인해 유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한다.

제자훈련 목회를 경험하다

청년부 제자훈련을 하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길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을 맞는다. 바로 CAL세미나다. 많은 목회자들이 CAL세미나를 통해 회복과 변화를 경험했듯이, 그에게도 CAL세미나는 충격과 도전, 그 자체였다. 그는 2001년 48기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광인론’을 들으면서 이 길만이 목회의 생명이라는 데 의심하지 않게 됐지요. 제자훈련 목회를 경험하고는 있었지만, 세미나를 통해 받은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특히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의 간증은 지역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수로 들어와서 같은 방을 쓰던 목회자들과의 나눔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방을 같이 쓰면서 제자훈련의 필요성, 현장에서의 열매에 대해 나눴다고 한다. CAL세미나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고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다락방 현상이었는데, 참관했던 다락방 순장이 순원들을 잘 인도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평신도가 그렇게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처럼 길 목사에게 CAL세미나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장이었다. 그는 이런 기쁨들을 현장에서 경



험하고 싶어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2003년 1월 사랑의교회에 부임한다.

길 목사가 목도하게 된 사랑의교회 현장은 시작부터가 달랐다. 담임목사가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과 훈련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생소한 현장이었다. 제자훈련을 받으려는 치열한 인터뷰 현장, 합격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 모두가 그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강명옥 전도사의 컨설팅을 통해 제자훈련의 실제적인 인도법을 듣고, 제자훈련은 지식 전달의 도구와 프로그램이 아니며,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확인했다. 길 목사는 당시 목양 팀장과 특새 팀장을 역임했는데, 오정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통해 도전받고, 동시에 예배 및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다.

이처럼 길 목사에게 있어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현장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였으며,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 준 곳이었다.

목회자 때문에 유명했던 교회에 부임하다

사랑의교회를 통해 제자훈련에 확신을 얻은 길 목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09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성북중앙교회에 부임한다. 길 목사는 성북중앙교회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두 명의 유명한 담임목사를 빼 놓을 수 없다고 했다.

“성북중앙교회는 48년 전 설립된 교회입니다. 설립 목사님은 한얼산기도원 원장으로 유명하신 이천석 목사님이세



요, 당시 은사, 치유집회 부흥사로 알려지셨던 분이시죠. 아마 이천석 목사님은 세계 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3대 담임목사님은 김의환 목사님으로 충신대 총장과 칼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시죠.”

담임목사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복중앙교회는 은사와 치유 중심의 교회, 그리고 짧기는 했지만 개혁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치유 집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차범근 선수가 선수 생명이 끝나갈 때, 한얼산 기도원에서 기도받은 일과, 88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가 팔꿈치 부상으로 팔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한얼산기도원에서 기도받고 나온 일이다. 이 같은 일화는 전통 교회인 성복중앙교회가 제자훈련과는 거리가 있던 교회였음을 보여 준다.

사실 제자훈련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전통 교회에 부임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제자훈련을 전통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길목사는 2009년 부임할 당시부터 꾸준히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은사, 치유 중심의 교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교회 전체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한 것이다.

그는 2009년 12월 부임 후 2010년부터 성경대학을 시작한다. 사실 성복중앙교회는 길목사가 부임

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자인 이천석 목사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자 교회는 후임목사 선정으로 분란을 경험했다. 이후 김의환 목사도 짧은 기간 시무한 후 사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후 사역한 목회자들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길목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말씀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길목사는 양육 체계를 바르게 세우고, 전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경대학이 이런 노력의 첫 단추가 됐다. 이후 교회는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을 꾸준히 공급하고, 동시에 예배도 함께 살아나면서 성도들의 목마름이 점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첫 대상은 당회원들이었다. 그는 당회원들과 자신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 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을 존중하면서 훈련 목회의 필요성을 당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자훈련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들을 당회원들과 함께 찾아갔다.

“사랑의교회도 갔었고, 새로남교회도 갔었습니다. 강남교회, 호산나교회, 인천 은혜의교회, 성남제일교회도 찾아갔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당회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길목사와 당회원들은 목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당회원 모두가 1기생으로 수료했다. 수료패를 증정하고, 그간 훈련받으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길목사의 이 같은 노력으로 당회원들 사이에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일어나, 훈련받은 당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통한 훈련 중심의 교회로 변화하는 신호탄을 쏘게 된다.

이듬해부터는 임직 받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게 했다. 그리고 이전에 임직 받은 성도들에게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권고했다. 물론 이런 권고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제자훈련 목회가 자리 잡게 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3기부터는 지원자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고, 교회 전체가 점점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길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한 일들도 겪었다고 한다. 그것은 ‘임직 선거 때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임직 선거를 할 때 훈련받지 않은 분이 계셨는데, 결국 권사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전



교회 안의 사역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과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통 교회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뿌리내릴 때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이다. 훈련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직분을 맡는 데 제한을 두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회원들이 목사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담임목사가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성북중앙교회는 당회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미 훈련을 받았기에 목회자와 동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힘이 돼 줬다. 그래서 현재 임직 대상자들 중에는 제자훈련을 끝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은사, 치유 중심의 전통 교회였던 성북중앙교회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을 간직한 채, 서서히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 교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하는 과정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성북중앙교회는 점점 변해갔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길 목사는 한 영혼을 향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훈련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배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은사를 받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성북중앙교회 부임 후 다툼과 아픔이 많았던 성도들의 삶을 보고 크게 마음 아팠다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걱정하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말씀을 통해 느끼고, 삶이 변해야 한다’였다고 한다.

성북중앙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은 성도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때

로 거부하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길 목사는 마음이 많이 어렵기도 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강남에서 사는 사람,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사람만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길 목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최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사실 지역 교회 현장에 들어가 보면 공부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다. 많은 지역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북중앙교회에서도 일어났다. 그때마다 길 목사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혜롭게 이끌었다.

길 목사는 교회의 크고 작은 다툼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훈련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장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제자훈련 할 때만 해도 어색해 하고 낯설어 했지만, 차츰 훈련생들을 통한 변화로 인해 자발적으로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성북중앙교회 하면 성경대학, 제자훈련 하는 교회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했다.

길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하면 할수록 목회의 본질이고,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제자훈련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 안의 사역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과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다

은사와 치유 중심의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 교회로 변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성북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처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노혜숙 순장(45세)으로, 2001년 12월부터 성북중앙교회에 출석해 교회의 힘든 시기를 함께한 성도다. 이분은 성북중앙교회 제자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자훈련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본 생활습관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일에는 성도로, 평일의 일반인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제자훈련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노 순장은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카페 봉사를 시작하며 제자훈련을 미뤘다고 한다. 그런데 봉사에 전념하다 보니 나태하고 소진된 영성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과제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차츰 자신감을 회복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총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섭 집사(56세)는 청년부에서 딸이 제자훈련 하는 것을 보고 도전받아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 “하면 얼마나 하겠냐?”라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제자훈련을 하는 날이 목요일이었었는데, 이상하게 목요일만 되면 평소 없던 일도 생겨 갈등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제자훈련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씩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고 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도생활, 쿠티, 말씀묵상, 설교요약, 교제예습, 성경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

를 시작하고 끝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어서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고 견딘 결과,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 과연 자신이 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수료했고, 이후 온 가족이 제자훈련을 받았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했다.

이 외에도 다른 몇 분들과 제자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자훈련이 믿음의 반석을 다지는 기초공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영적 재탄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하나같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은혜 받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면 끝이 없다. 길 목사는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김금수 권사(70세)의 암송 장면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말한다. 70세가 넘는 권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성북중앙교회 제자훈련의 놀라운 일 중 하나가 70세를 넘기신 분들이 훈련을 수료하셨다는 사실이다.

김 권사님의 암송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다. 젊은이들도 힘들다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수료식 강단에서 쉬지 않고 한 것이다. 암송을 들은 성도들은 자연스레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권사님의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다.

가끔 제자훈련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길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성북중앙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젊은 청년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제자훈련은 생명이다

성북중앙교회는 은사와 치유 중심의 교회, 목회자가 유명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다. 2014년 4기까지 수료생은 장년 제자훈련 119명, 청년부 제자훈련 77명이며, 올해 현재 장년 26명, 청년 25명, 장년 사역훈련 30명이 훈련 중이다. 분명 제자훈련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 가운데 있던 교회가 제자훈련 교회로 탈바꿈 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박수 받을 일이다.

오늘날 많은 전통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을 빌려도, 제대로 말씀과 훈련 중심의 교회로 변모하지 못하고 있다. 길 목사는 이런 전통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제자훈련 목회는 본질입니다. 제자훈련은 생명입니다. 신실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 목사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특히 강북지역 전통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소통이 없고, 교인 수가 늘어나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계에 맞춰, 서두르지 말고, 예배를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고 말씀과 훈련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동기부여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주일예배 강단을 제자훈련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일깨워야, 또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분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간증, 로마서 8장 압송과 같이 제자훈련을 통해 맺은 열매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료식에는 온 가족을 초청해, 수료식이 제자훈련 동기부여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배 인원은 많아도 어려움이 있는 교회, 분란으로 고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무시하고, 봉사만 강조하는 교회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길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다.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한, 성북중앙교회는 제자훈련을 바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훈련을 마치는 성도들은 순장 사역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성북중앙교회에는 ‘오병이어’라는 사역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사역을 5년째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인근 지방 유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새 벽만나’라는 사역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유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인데, 젊은이들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매일 아침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공유하는 대학 인터넷 게시판 등에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 새신자반 외에 별도로 완전 초보반 21명의 학생들을 양육하는 열매도 맺게 됐다. 그리고 2년간의 ‘예그리나’라는 카페 운영을 통해, 순수 수익금으로 고려대학교에 2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길 목사는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원했다. 이를 위한 길 목사의 향후 제자훈련 목회 방향을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이다.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학생들을 섬기며, 복음이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했다. 둘째, 통일과 관련한 사역이다. 길 목사는 전 세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시대적 사명인 통일에 대해 함께 꿈꾸는 일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셋째, 오늘날 전통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길 목사의 이 같은 비전은 ‘선대의 강점을 지키되 후대를 키우고 세우자’라는 수선대후(守先待後) 정신에서 비롯된다. 옥한흠 목사, 오정현 목사로부터 배운 제자훈련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 그리고 성북중앙교회의 좋은 전통을 유지코자 하는 마음, 그리하여 세상이 존중하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정신이 길 목사의 말에 묻어 있다.

그래서 이번 창립 48주년 기념으로 드린 ‘온 세대 가족연합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의미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훈련을 마치는
성도들은 순장 사역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성북중앙교회에는
'오병이어'라는 사역을 통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사역을
5년째 하고 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모두가 공유하는 자리가 돼 뜻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상에 존중받는 교회가 되려는 성북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도 제자훈련을 물려받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진로를 수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성북중앙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전 세대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동적 중흥기를 맞고 있다. 새신자가 오면 배격하는 분위기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신앙 연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동역자로 보는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시에 교회도 양적·영적으로 성장해 모두가 하나 돼 함께 뛰는 놀라운 일들이 훈련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세상의 존중을 받는 교회'가 되겠다는 성북중앙교회의 비전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역 현장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길 목사는 이런 꿈과 비전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제자훈련은 생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의 존중을 받기 위해 힘을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제자훈련 목회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자, 훈련생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온전한 기쁨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성북중앙교회 현장을 보며, 어려웠던 시기를 말씀과 훈련으로 이겨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위기로 인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변화해 가는 성북중앙교회의 모습은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성북중앙교회가 '성북구 종암동'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기도한다. <조철민 강도사>

